

세계 첫 ‘유네스코 창의도시 파빌리온’ 광주서 만난다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이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간 첫 공동 파빌리온 추진이라는 의미 있는 국제적 성과를 거뒀다. G.MAP은 내년 9월 열린 2026년 광주비엔날레를 계기로 세계 최초의 ‘유네스코 창의도시 파빌리온(UCCN Media Arts Pavilion)’을 공식 추진하며, 국가 단위를 넘어선 도시 네트워크 기반 미디어아트 협력 모델을 현실화하는 데 첫 발을 내디뎠다.

UCCN Media Arts Pavilion

G.MAP, 벨기에 나뮈르 국제회의서 사업 공식 발제
도시 네트워크 기반 미디어아트 협력...내년 9월 첫선
국가관 넘어선 초국가형 구조...세계 연대의 장 연다

이번 파빌리온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가 참여할 수 있는 국제 협업 플랫폼으로, 국가별 국가관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파빌리온 방식에서 미디어아트 장르 중심의 초국가적 파빌리온으로 확장되는 첫 사례다. 일반적으로 파빌리온(pavilion)은 전시장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독립 구조물을 말한다. 현대미술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공유하는 장의 역할을 해왔다. 광주비엔날레에서도 각국이 개별 국가관을 통해 문화적 개성과 작품 세계를 소개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광주에서 추진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난달 22~26일 벨기에 나뮈르에서 열린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국제회의의 단체사진. 이날 회의에서 G.MAP은 세계 첫 ‘유네스코 창의도시 파빌리온’ 추진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파빌리온’은 국가 단위를 넘어선 도시 네트워크(UCCN) 기반의 최초 초국가형 파빌리온이자 ‘미디어아트’라는 장르를 중심으로 협업하는 첫 파빌리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G.MAP은 지난달 22~26일 벨기에 나뮈르에서 열린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국제회의에서 이 사업 계획을 공식 발제했다. 발제 이후 독일 카를스루에, 포르투갈 브라가, 미국 오스틴 등 10개 이상의 도시가 참여 의사를 밝히며 국제적 관심을 확인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내년 2월 온라인 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4월 참여 작가 확정, 9월 개막을 목표로 진행된다. 개막

식, VIP 투어, 프레스 프로그램, 국제 교류 행사가 3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김하나 G.MAP 학예연구사는 “이번 파빌리온은 세계 미디어아트 정책과 창작 교류의 허브로서 광주와 G.MAP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광주의 미디어아트가 국제 협력과 연대에 긍정적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하경 G.MAP 센터장은 “전 세계 창의도시와 함께 만드는 최초의 국제 협업 파빌리온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광주의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브랜드를 시민과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예술로 하나”

‘제2회 남구장애인예술단 정기연주회’
오는 25일 남구문화예술회관서 개최

광주 남구는 20일 “제2회 남구장애인예술단 행복그린 정기연주회가 오는 25일 오후 3시 남구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 2021년 창단된 장애인예술단은 전국 대회 대상을 받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관내 거주 장애인, 시설 단체 관계자와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첫 무대는 ‘그린 앙상블’ 팀이 5분간 ‘맘보+모차르트’ 교향곡 연주를 선보인다. 이어 ‘행복이음 합창단’이 가곡 ‘남촌’과 가요 ‘새들처럼’을 하모니로 전달한다.

또 그린 앙상블 팀은 뮤지컬 밴드와 함께 대중가요 ‘아모르파티’ 리듬에 맞춰 연주와 목소리의 합을 이어간 뒤 영화 위대한 쇼맨 OST ‘This is me’를 협연한다.

‘그린 오케스트라’ 팀은 광주시교육청 ‘소리별 앙상블’과 협연해 헨델의 모음곡인 ‘알라 혼파이프’와 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의 8분의 6박자 춤곡인 ‘파랑돌’ 등을 연주한다.

장애인예술단을 운영하는 남구 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정기 연주회는 우리 단원들에게 도전 무대이자 기회의 장이며 관객에게는 예술로 하나 되는 남구의 감동적인 모습을 전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형우 기자

同人선생의 易經 강좌

〈제36강〉 7. 지수사(地水師) 上

역경 일곱번째 궤는 지수사(地水師)이다. 여기서 ‘사(師)’자는 ‘언덕 부(阜)와 두를 잡(市)’으로 구성돼 ‘언덕이나 마을을 병사로 두르거나 에워싸다’는 뜻으로 싸움, 전쟁하는 군중, 무리와 이를 이끄는 스승, 장군을 의미한다. 즉 대장이 언덕에서 깃발을 들고 병사를 모으고 지휘하는 상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수사(地水師)	師, 貞, 丈人吉 无咎	卦 象
	大君有命 開國承家 小人勿用 田有禽 利執言 无咎 長子師 弟子與尸 凶	天馬出軍之課
	師左次 无咎	地勢臨淵之象
	師或閉戶 凶	以寡伏衆之象
	在師中 吉 无咎 王三錫命	口論爭爭之意
	師出以律 否臧 凶	

사(師)는 군대조직의 단위로 주(周)나라 시대의 병제(兵制)에는 500명을 한단위로 여(旅)라 하고 이것의 5배를 사(師), 또 이것의 5배를 군(軍)이라 해 오늘날의 여단, 사단, 군단과 같은 의미다. 득괘해 사괘(師卦)를 얻으면 당사자는 군인이거나 선생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상괘는 곤지, 하괘는 감수로 평지에 물이 들어 있고 일양(一陽)이 오음(五陰)을 거느리고 있어 일양의 한 남자가 오음의 여자들 사이에서 색정(色情)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지수사괘의 패상(卦象)을 살펴보면 곤(坤)의 땅이 있고 그 밑에 감(坎)의 물이 있다(地勢臨淵之象). 원래 물은 지상에 있어야 하는데 지하에 숨겨져 있어서 물의 역할을 못하니 가뭄이고 물이 귀해서 물과 관련된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괘를 사괘라 하고 싸움의 상으로 본다. 감수의 주괘주인 구이가 오음을 거느리고 있어 천마출군지과(天馬出軍之課)이고 적은 무리들이 많은 무리들을 복종시키고 있어 이과복중지상(以寡伏衆之象)의 모습이며 감수의 지혜와 말로써 어리석은 무리를 제압하는 구론쟁격지의(口論爭擊之意)의 뜻을 품고 있다.

사괘를 송괘의 다음에 배치한 이유에 대해 서괘전(序卦傳)에서는 ‘송사는 반드시 무리로 일어나므로 사괘로 이어받고 사라지는 것은 무리(衆)’라고 해 ‘송필유중기고수지이사사자중야’(訟必有衆起 故受之以師, 師者衆也)라고 말한다.

먹는 것(需卦)으로 인해 싸우고 송사하는 문제가 일어나니 이 괘가 송괘(訟卦)이고 송괘는 재판으로 원고, 피고, 재판관, 청중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편을 갈라 전쟁을 하게 되니 무력을 가지고 이를 정벌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바로 사괘(師卦)다. 따라서 사괘는 전쟁을 의미하니 전쟁하는 병사의 무리가 필요하고 전쟁에는 근심 걱정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래서 잡괘전(雜卦傳)에서는 사(師)를 ‘무리, 근심, 전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괘는 병농일치(兵農一致)의 사회상이다. 상괘 곤도는 대중, 농부로서 전사에는 병사가 되고, 평시에는 평민으로 농부다. 하괘 감수는 법, 지혜, 모사(謀事)에 능한 외유내강(外柔內剛)의 지도자라 할 수 있다. 지도자가 병사를 거느리는 상으로 금방이라도 출사(出師)가 가능하다. 지도자는 불의(不義)를 징벌하기 위해 출사(出師)해야 하고 또한 대중을 지휘 통솔할 수 있는 지인용(智仁勇)의 역량을 갖추어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패사는 이러한 뜻을 잡아 지어졌다.

지수사괘(師卦)의 괘사에서는 ‘사, 정 장인길 무구’(師, 貞 丈人吉 无咎)라 한다. 즉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니 바로고 큰 기량을 가진 사람이 군을 통솔해야만 이길하고 허물이 없다’는 뜻이다.

오음 일양의 괘로 오음의 병사를 구이 일양의 장수가 통솔하는 상이다.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폭도가 백성을 괴롭힐 때 정의를 위해 정벌하는 것은 당연하고 지인용(智仁勇)을 겸비한 장인(丈人), 즉 사괘에서 구이처럼 강중(剛中)을 독한 사람이 무리를 이끌어야 폭도를 진압해 난국을 진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늘의 도에 어긋나지 않아 길하고 허물이 없다.

상전(象傳)에서는 ‘사는 무리이고 바름은 정의로위야 하며(師衆也 貞正也), 능히 무리들이 정의로우면 가히 왕위에 오를 수 있다(能以衆正 可以王矣)’고 말한다.

사괘에서 구이는 강중(剛中)으로 성괘주효이고 오호의 명군(明君)과 음양상응(陰陽相應)한다. 즉 육오의 군(君)이 선전포고를 하면 구이가 장수가 돼서 민중을 괴롭히는 도적을 무찌른다. 그리해 길하고 허물이 없다.

사괘는 곤이 위에 있고 아래에 감이 있는 상으로 물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곤지 속에 흡수되고 축적돼 있어 땅을 파면 지하수가 나오는 상이다.

이러한 패상처럼 군자(坎水)는 민중(坤地)을 받들어 포용하고 양육함으로써 미래를 대비하는 국민개병제(國民皆兵制)와 같은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를 상전에 서는 ‘지중유수 사, 군자이용민축중’(地中有水 師, 君子以容民畜衆)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상하괘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내괘 구이는 강중부정

“사, 정 장인길 무구”

(剛中不正)의 자리에 있어 싸움 충분한 힘과 능력을 갖추고 있으니 초육과 육삼의 음(陰)에 둘러 싸여 있어 외부에 드러나 있지 않고, 외부에 드러난 상괘가 곤괘로 유순해 힘이 없기 때문에 외부의 침략을 받기가 쉽다. 그래서 사괘라 하고 만일 하나의 양이 초효에 있거나 삼효에 있으면 힘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침략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도 이순신 장군과 같은 구이가 오음을 통솔해 결국 막아낼 수 있다.

점사에서 무동(無動)의 사괘(※각주=상월(象曰), 땅속에 물이 사이다. 군자는 백성을 포용하고 무리를 기른다(地中有水 師, 君子以容民畜衆). 사괘(師卦)는 감궁삼세로 괘는 칠월에 속한다(坎宮三世 卦屬七月). 남갑은 戊寅 戊辰 戊午 癸丑 癸亥 癸酉이고 차용은 乙丑 乙亥 乙酉이다. 무릇 칠월 및 남갑에 생한 자는 공명부귀인이 된다(凡生於七月及納甲者 功名富貴之人). 사자의 뜻을 취하니 크면 대즉사부, 사보, 사장이요, 바금인 즉 병사, 전사, 법사, 대사 등으로 한결 같지 않다(師字取義 大則師保, 師保, 師將, 次則兵師 禪師, 法師, 大師, 不一/傳 스승 부)를 얻으면, 사괘는 지도자와 관련된 괘로서 사람 위에 서는 자는 언제나 언동(言動)을 삼가하고 사욕(私慾)을 버리며 군세계 나아가면 뜻을 이룬다. 그러나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을 우선으로 삼아야 하고, 만약 싸우게 되면 반드시 구이와 같은 적격(適格)의 인재를 등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상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이 모일 일이 있고 근심 걱정과 함께 다툼이 있다.

육오는 구이를 잘 활용해야만 이 신고간난(辛苦艱難)을 극복할 수 있다. 비록 구이가 평민이라 하더라도 권한과 직책이 있는 자리로 등용해 활용하면 천하를 구제하고 백성의 지지를 받아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

사괘는 나쁜 징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평온, 기쁨 등도 없는 괘로 어느 정도의 고생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고, 혼자서 풀어나가기 보다는 여럿이 함께 일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사(師)는 싸움이지만 그 원인은 이해(利害)가 상반되기 때문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화합을 얻기 어렵고 가정에 풍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일양이 오음 안에 있어 한 남자가 다섯 여자를 바라보는 상으로 여자는 음분(淫奔)하고 남자는 다정(多情)해 음욕(淫慾)의 난(難)으로 색정의 문제가 일어나기 쉽다. 따라서 혼담은 불가하고 구설과 다툼이 있다.

곤(坤)의 뱃속에 일양을 담고 있어 잉태는 의심의 여지

가 없고 잉태의 초기에는 곤모(坤母)가 감(坎)의 어려움을 가진 상이므로 어려움이 있으나 출산의 시기라면 분만의 전쟁을 통해 곧 산산한다.

곤(坤)은 밤, 감(坎)은 도둑으로 밤도둑이 우려했으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바람, 거레 등은 다툼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구이의 도움과 지혜가 필요하다. 기다리는 사람, 가출인, 분실물은 지하로 물이 새나거나 돌아오기 힘들고 찾기가 어렵다. 상괘 곤(坤)의 노모가 밖에 나가 일하고, 하괘 감(坎)의 젊은이가 집안에서 반동거리는 상으로 주위의 고생이 많아 주소이동은 안하는 것이 좋다. 매매에서는 무리들 간에 격한 경쟁이 있다. 물가는 하락한다. 병은 곤(坤) 중에 일양을 놓아 식독, 암, 결석, 유행성 질병, 소화기병으로 병세는 오호가 변하면 귀환괘가 돼 오래된 중병이고, 지뢰복에서 지수사가 됐으니 재발, 반복된 병이라 할 수 있다. 날씨는 구름이 끼고 비가 올 듯하다.

지수사 운이생괘(復 ↔ 師 ↔ 謙 ↔ 豫)			
지뢰복	지수사	지산겸	뇌지에

운이생괘로 괘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뢰복에서 지수사, 지산겸, 뇌지에로 월호(越爻)하거나, 그 반대라도 보기도 하고, 곤의 평화로운 지면에 일양이 날아 들어왔다고 볼 수도 있다.

역경의 육십사괘가 건(乾), 곤(坤)에서 시작해 둔(屯), 몽(蒙), 수(需), 송(訟), 사(師), 비(比) 괘까지 여섯 괘가 모두 감수를 포함하고 있다.

만물은 감(坎)의 물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물은 양육의 근본으로 치국(治國), 제가(齊家), 수신(修身)에 있어 감수의 어려움이 있다는 의미에서 감수를 포함한 이러한 괘들이 역경의 상경에서도 앞에 위치하고 있다.

【동인선생 강좌개설안내(062-654-4272)】

- 개설과목②:명리사주학,역경(매주토,일오전)
- 기초이론부터최고수준까지 직업전문가양성

